

I. 검토배경

- 국가별로 보험회계제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, 손익계산서 중심의 공시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.
 - 생명보험 상품판매에 따른 최종손익은 보험계약 만기일과 모든 급부가 지급되기 전에는 확정될 수 없으므로,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움.
 -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“책임준비금”과 “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”과 같은 평가성 항목의 조정을 통하여 당기손익을 확정·공시하고 있음.
 - 평가기초율에 대한 객관성과 비교가능성 부족 등으로 보험사 내·외부의 정보이용자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.
 -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는 “검증가능성” 제고를 위하여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미래 재무상태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.
 - 또한, 기업가치 극대화가 경영의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재무제표는 생명보험계약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함.
 - 해당 회계연도에 판매된 신계약의 수익성과 기 판매된 보유계약의 수익성에 대한 정보 부재
 - 직전 회계연도말 예상치(Estimates)와 경험실적(Actual Experiences)간 비교·분석* 정보의 부재
 - * 직전 회계연도말 당기손익 확정을 위하여 설정된 평가기초율과 경험실적간의 차이가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정보이며, 동 정보는 평가기초율 설정의 객관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음.

-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정보제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유럽 및 캐나다 생명보험사업자는 보조 보고서(Supplementary Report)의 공시를 통하여 추가적인 경영실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- 유럽의 경우는 상장 보험사의 평가를 위하여 1990년대부터 전통적인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내재가치(Embedded Value) 분석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음.
 - CFO Forum*은 “유럽의 내재가치 기준서(EEV Principles : European Embedded Value Principles)”를 2004년 5월 공표하고, 2005 회계연도부터 적용중임.
 - * CFO Forum : 유럽의 주요 보험회사 CFO(Chief Financial Officer)들이 2002년도에 만든 조직으로서 국제회계기준과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이슈의 토의를 목적으로 창설.
- 캐나다 금융감독청(OSFI :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)은 “이원 공시 기준서”를 공표하였고, 보험사는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고 있음.
 - 이원공시는 캐나다 GAAP에 의하여 산출된 당기손익의 발생원천을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와는 다른 형태로 분석·공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.
- 이에 유럽 및 캐나다의 경영실적 추가공시 특징 및 트렌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,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